

지방자치·국제

저출산 극복 위해 뭉친다

오늘 '아이낳기 좋은세상 광주·전남본부' 출범 양육환경 개선·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등 앞장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보건복지부, 지역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 시·도민 출산장려운동이 본격화된다.

29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 전제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민·관 단체장 등 지역 정치·경제·사회·시민단체 대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광주·전남운동 본부' 출범식이 열린다.

참가 단체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각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

한 도민인식 개선과 함께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출산장려 운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행동선언을 채택·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시·도는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육비·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늘어선 일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불임시술 지원 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식 퇴근문화 정착, 출

산·육아휴직과 재택근무 제도 이행, 직장보육시설 확충 이행 등을 선언했으며, 시민·사회계는 저출산 극복 공동캠페인 지속 전개, 일산부를 보호·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양성평등 문화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성계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민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종교계는 부적절한 낙태 예방활동 및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과 육 전개, 이혼과 자녀탈산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건전한 가정 만들기 등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전남의 경우 2007년 기준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합계 출산율은 1.53명으로 전국 평균인 1.19명을 웃돌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1.6명)보다는 낮아 저출산율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

전남도 긴급복지사업비 26억 추가 확보

전남도가 경기불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지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사업비 2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전남도는 29일,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5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추경을 통해 26억 원을 추가로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불황으로 인한 휴·폐업 사업자는 물론 실직근로자 등에 대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학용품 등 교유비 지원을 신설해 초등학생 17만 원, 중학생 27만 원, 고등학생 32만9천 원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2만 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7월 현재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은 도민은 총 2천706명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등 26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가 증가한 것이다.

/총행기자 redplane@



키신저 맞이하는 힐러리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28일(현지시간) 미국-중국 전략·경제대화 종료 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중국의 왕치산 부총리, 다이빙귀 국무위원을 위한 양국 무역위원회 민찬에서 연설한 뒤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대북제재이행 합의 재확인”

미 국무부 “北 인권문제 많은 우려”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고 미 국무부가 28일 밝혔다.

이안 켈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관심사가 이번 논의 및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의

회담에서 다뤄졌다”고 말했다.

켈리 대변인은 이어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 필요성과 6자회담 북극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묻는 질문에 클린턴 장관이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석 당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거론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정말 우려하고 있으며, 많은 다른 포럼들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인권문제에 대해 계속 우려할 것이라는 질문에 “명백히 그렇다”면서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인권 기록과 주민들을 위한 정치적 자유의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면세점’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나

신규사업자 공모 응찰자 없어 폐쇄 위기 전남도 “공항공사에 철수시기 늦춰달라”

경영난으로 폐쇄위기에 처한 무안 국제공항 면세점을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전남도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서 따르면 현재 무안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면세점 운영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가 이 면세점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면세점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면세점 운영사업자 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면세점 운영을 그만두기로 한 한국관광공사에 철수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총행기자 redplane@

광주시 내달 3일부터

영어민 영어체험캠프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각 자치구별로 1곳씩 열리는 원어민 초청 영어체험캠프(EECN·English Experience Camp by Native speaker)에 미국 샌안토니오시 인커네이트워드대학교(UIW) 재학생 10명이 원어민강사로 참여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광주시와 교육협력 MOU를 체결한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의 인커네이트워드 대학교 우수학생 10명 등 모두 25명으로 원어민 강사를 구성해 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서석영센터, 광천영어센터, 호남삼육고, 무등도서관 아메리칸코너, 점단도서관 등에서 영어체험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영어체험캠프에는 이달 초 학교교 추천으로 선발된 초등학생 75명과 중학생 75명 등 총 150명이 참가하게 되며, 학생들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강의식 생활영어, 상황체험형 영어학습을 통해 영어를 익히고 광주영어방송의 선데이버블 프로그램에도 참가한다.

/윤현식기자 chadod@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광만씨

한나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김광만(48·사진) 전 광주시당 전국위원이 선출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29일 시당 대강당에서 열린 위원장 경선에서 유효투표 220표 중 111표를 얻어 106표를

획득한 김태호 현 시당위원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광주시당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단합을 꾀하고, 당원들이 중



양당과 요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신임 위원장은 당내에서 이재오 전 최고위원 과파로 분류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잭슨 주치의 주택 전격 압수수색

마이클 잭슨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미국 당국이 잭슨이 숨지던 전 강력한 마취제를 주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치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연방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은 28일 라스베이거스 경찰의 지원을 받아 고급주택 ‘레드 락 컨트리 클럽’에 있는 주치의 콘래드 머리의 자택과 라스베이거스 시내의 그의 병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머리는 수사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집에 있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다. 마이클 플래너건 DEA 라스베이거스 사무소장은 마이클 잭슨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22일 DEA 요원과 로스앤젤레스(LA) 경찰은 머리의 휴스턴 병원과 물품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중이다.

당시 당국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록에서 머리의 ‘살인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위구르 ‘대모’ 日 자민당 본부 방문

일본을 방문 중인 위구르 독립운동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레비야 카디르가 29일 오전 자민당 중앙본부 방문, 에토 세이치 참의원 의원 등과 회담했다.

당 본부 방문은 집행부가 카디르의 요청을 수용해서 이뤄졌다. 카디르는 지난 2007년 11월에도 일본을 방문한 바 있으나 자민당 본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민당은 카디르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그와의 대화를 증진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중국 측은 카디르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난 시위를 선동했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일본 정부의 방일 비자 발급에 반발하고 있다.

카디르는 이날 회담에서 “탄압이 계속되는 위구르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구속된 위구르족의 석방을 중국 측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회담 후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본부 방문을 허용해 준 자민당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에토 의원 등) 위구르족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중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본원출신 실제 합격자 중 80%가 여흥발학부터 공무원강좌 수강신청!! www.hanbitgosi.co.kr

중앙선관위 2009. 8. 23시분 반대로인 수석합격자 배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7.9 =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중합반 하루9시간 강의

한빛소방직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

김영현입학원